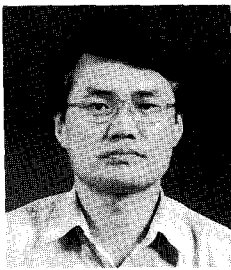




재래닭의 계통조성 현황



최 철 환

(축산기술연구소 가금과)

1. 재래닭의 변천과정

우리나라의 닭 사육기원은 확실치 않으나 삼국사기에 신라시조 혁거세왕이 알에서 태어났다는 설과 김알지의 탄생과 계림(鷄林)의 관계에 비추어 당시 닭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다. 또한 3세기 중엽의 삼국지 위지동이전에 우리나라에서 닭을 사육한 기록이 있으며 신라시대 고분인 천마총에서 계란이 출토된 점으로 보아 왕릉에 부장품으로 매장될 만큼 귀하게 여겼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우리나라 닭의 기원은 약 2000년 전으로 추정된다.

이후 조선시대의 농업서적인 금양잡록(衿陽雜錄)과 농가집성(農家集成) 및 임원경제

지(林園經濟志)에도 닭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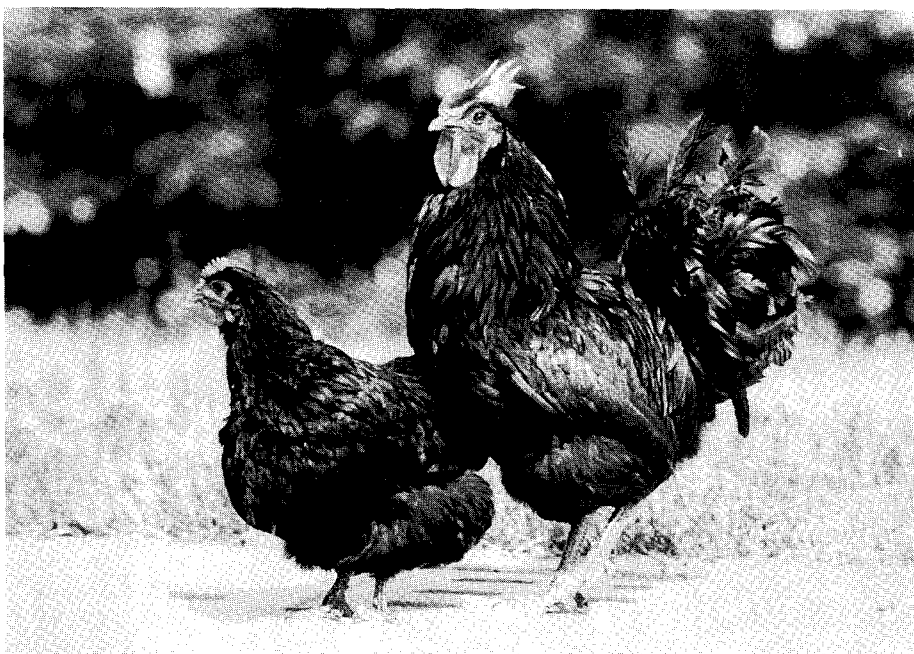
이처럼 1900년 이전까지 전국 곳곳에서 사육되던 닭은 모두 재래닭이었으나 일본강점에서부터 해방과 6.25 전란을 겪으면서 재래닭은 거의 소멸되다시피 하였고 전후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개량종이 대량으로 도입되므로 순수한 토종재래닭은 점차 자취를 감추어 갔다. 더구나 1960년대부터 상업용 종계가 수입되면서 재래닭은 물론 국내의 종계개량사업도 위축되게 되었다.

이후 급격한 산업화에 의한 축산물 수요가 증가되면서 닭고기와 계란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생산성이 높고 수익성이 좋은 개량종닭이 대량으로 사육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양계산업은 대규모, 전업화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와는 상대적으로 재래닭은 사육수가 급격히 감소되어 거의 멸종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국내 양계산업의 발전 뒤에는 우리의 토종이 수난을 당하는 아픔이 동반되었다.

2. 재래닭 계통조성의 배경

근래에 오면서 국민소득과 생활수준의 향

상으로 축산물 소비에 있어서도 기호성을 중시하고 양보다는 질을 찾는 성향이 높아지면서 재래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재래닭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사육수도 크게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와 함께 고유가축의 보존에 대한



의미가 대두되면서 재래닭 품종의 순수성 확립과 재래닭을 이용한 실용화 및 산업화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추진되게 되었다.

재래닭은 오랫동안 우리 식단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육류 공급원이었으며 특히 즐겁고 담백한 특유의 맛은 선호도가 높아 현재 대규모로 사육되는 생산성이 좋은 개량종과의 차별성을 지켜가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보여진다. 다만 이제까지의 재래닭은 체계적인 품종유지와 생산체계가 확립되지 않고 경제성이 낮아 품질의 규격화 및 산업화가 어려운 것이 문제점이었다. 그러므로 재래닭 유전자원의 확보와 아울러 안정적 생산체계를 확립하여 이를 기반으로 축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품질의 고급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최근 재래닭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전체 양계산물에서 재래닭이 차지하는 비

중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재래닭이 생산하는 특유의 고기맛을 선호하는 소비층을 확보하고 재래닭을 활용한 닭고기의 품질 고급화와 산업화로 부가가치를 높여 간다면 대규모로 사육되고 있는 개량종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에 손색이 없으며 나아가 경쟁력있는 수출품목으로서도 활용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여겨진다.

가까운 대만에서는 닭고기 총생산량중 재래종 닭고기가 60% 수준을 차지할 정도로 보편화 되어있고, 일본에서도 순수품종의 재래닭을 이용하여 지역별로 수십종의 특수닭고기를 생산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어 우리도 이러한 발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3. 순수계통 조성 및 유지

이러한 필요에 따라 1992년부터 축산기술



혈통번식에 의하여 1년에 한세대씩 계대를 유지하여 왔으며 현재 선발 8 세대에 평균 97% 수준으로 순도가 유지되고 있다.

순계 1세대를 유지하는데는 계통당 1,000수 내외를 검정하여 200~250수를 선발하고 선발된 부계 20~30가계와 모계 150~250수에 대하여 혈연을 고려한 배용으로 혈통번식을 실시하며 능력선발은 체중, 시산, 산란수, 난중 등의 형질에 대하여 개체별로 조사한 검정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고 외모선발은 계종별 외모특징에 의하여 선발한다.

재래닭의 특징은 몸이 가벼우며 날개가 강하여 잘 나르고 행동이 활발하다. 알을 품는 성질이 강하고 병아리를 잘 기른다. 벗은 흘빛으로 적색이고 고기수염이 길고 목깃털이 많다. 체형은 장방형으로 성계의 몸무게는 수컷이 2.4kg, 암컷이 1.9kg 내외이다. 산란수는 계통조성 이전에는 연간 80

연구소를 중심으로 국내 산재한 재래닭 집단으로부터 기초계를 수집하여 고유특성에 따른 순수계통을 육성함과 동시에 주요형질에 대한 능력을 검정하고 개량하여 왔으며 우리나라 고유한 재래닭 유전소재의 유지보존과 이를 기초로한 고품질 닭고기개발 및 보급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먼저 수차례에 걸쳐 수집된 재래닭 종자를 선발하여 기초집단으로 조성하고 순수화복원으로 적갈색, 황갈색, 흑색 등의 외모발현에 따른 계통을 육성하였다. 이 계통들에 대하여

~120개 정도였으나 현재는 연간 175~180개 정도가 된다. 알모양은 타원형으로 연한 갈색이며 난중은 52g 내외이다. 또한 비육은 잘 되지 않으나 육질은 기름이 적고 즐깃즐깃한 맛이 난다

전체적인 깃털 색깔이 진한 갈색을 갖는 것은 적갈색종, 연한 갈색을 갖는 것은 황갈

표1. 1세대 혈통유지에 소요되는 재래닭 순계수수

구분	검정수			선발수			선발율(%)		
	♀	♂	계	♀	♂	계	♀	♂	계
1계통	800	200	1,000	210	30	240	26	15	24

색종, 흑색을 띠는 것은 흑색종, 순백색인 것을 백색종, 회색과 갈색이 섞여 있는 것은 회갈색종으로 구분하며 계종에 관계없이 정강이색은 연흑 또는 암록색으로 고정되도록 유지하고 있다.

4. 재래닭 순계의 능력

재래닭 순계의 능력검정은 1년에 1세대씩 유지되도록 270일령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 검정성적에 의하여 개량방향을 설정하고 선발자료로 활용한다.

능력검정은 부화성적, 육성기와 산란기성적으로 조사하며 모든 조사는 각 개체별로 실시되고 기록된다. 이 성적은 세대별, 계통별, 가계별, 개체별로 입력되어 전산처리되며 혈통기록관리와 함께 선발배우 프로그램에 의해서 세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시설과 인력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투입되는 예산도 만만치가 않다. 또한 품종보존과 개량사업은 당장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다.

재래닭 5계통의 270일령(38주령)에 대한 평균능력과 주요형질의 7세대간 능력변화 추이는 표2와 같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황갈색계통은 산란형으로 적갈색과 흑색계통은

난중 및 산육형으로 유지개량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닭으로 이용하여 생산성이 증대된 고품질의 실용재래닭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5. 맺는말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토종닭과 재래닭은 의미상 같다. 재래닭 복원과 순수계통조성 사업이 이루어 지면서 외래종과 구별되는 고유 품종이란 의미에서 재래닭으로 부르기로 하였다. 굳이 구분하자면 넓은 의미의 재래닭에 비해서 토종닭은 지역에 따라 특색있는 외모형태나 특징을 갖는 좁은 의미의 재래닭을 일컫는다고 볼 수 있다.

재래닭 육용화사업에 의하여 산육능력이 증대되고 생산성이 높은 종계와 실용계를 개발하므로써 이를 넓은 의미의 일반 재래닭과 구분하고 생산체계에 따른 세대별로 구분되게 하기 위하여 기초되는 순계를 한국재래닭이라 하고 한국재래닭의 혈액비율이 50% 이상 되는 2원교배종을 개량재래닭(종계), 한국재래닭의 혈액비율이 25% 이상되는 3~4원 교배종을 실용재래닭(실용계)으로 부르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고유의 재래닭 유전자원은 종자확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보존 되어야 하겠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품종개발이나 고품질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산업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함께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양계**

표2. 주요형질에 대한 재래닭 순계의 능력(270일 성적)

구 분	부화율 (%)	성계생존율 (%)	38주체중 (g)	시산일령 (일)	난 중 (g)	산란수 (개)
평균능력	90.2	97.8	1773	144.4	49.8	77.3
세대당 변화량	0.24	0.66	3.17	-0.78	0.29	0.21